

‘내 돈 관리의 끝판왕’ 신한 광고 조회 폭발



신한은행은 지난달 27일 유튜브와 SNS를 통해 공개한 ‘내 돈 관리의 끝판왕’ 광고가 열흘 만에 1,000만 조회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광고는 신한은행이 신한 쏠(SOL)을 통해 제공하는 디지털 금융 컨설팅 서비스 ‘MY자산’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자산 관리와 목돈 마련 노하우를 알려주는 형식이다. 컨셉은 느와르다. 배우 박도원과 이엘이 출연했다.

정보·연기력·광고 삼박자가 어우러졌다는 평가다. 마치 새로 개봉하는 영화로 착각할 만큼 참신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와 SNS를 통해 광고를 접한 고객들은 출연 배우의 연기력과 영상 연출력에 대한 호평은 물론 몰입감과 파급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금융권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과 연출로 광고 몰입감을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브랜드로써 차별화된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오창균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

“코로나 타격 이제부터”… 지방銀 수익성 하락 불가피

덩치값 못한 부산·대구·경남…순익 큰 폭↓
NIM 연속 내리막길…2분기 추가 하락 전망
코로나 비껴간 광주·전북…작년 이어 선망

지난해 연간 실적으로 선방했던 5대 지방은행이 올해 1분기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 장기화 속에서 코로나 19 사태가 겹치며 시장금리 하락에 경기 침체 경고등까지 켜졌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이 덩치값을 못하며 체면을 구긴 가운데 수익성 하락은 물론 향후 건전성도 우려된다.

◆부산·경남은행 순이익 20% 급감

5대 지방은행 중 1분기 순이익 하락 폭이 가장 큰 곳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다. 1년 전보다 각각 22.7%, 24.2% 감소했다.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이자이익이 각각 3.3%, 7.0% 감소한 가운데 유가증권 관련 손익 부진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대출 성장이 부진한 점도 원인이다. 부산은행 원화대출은 전년 말보다 0.4%, 경남은행은 0.9% 느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했으나 집단대출 만기도래로 가계대출이 감소한 탓이다.

여기에 더해 부산은행은 비이자이익이 큰 폭 하락했고, 부동산 PF대출 상환 영향과 함께 지난해 322억원의 중당금환입 소멸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대표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도 지난해 1%대로 추락한 이후 연속 내리막이다. 부산은행 NIM은 지난해 4분기 1.98%로 떨어진 후 올해 1분기 1.94%를 찍었다.

지방은행 중 NIM 수준이 가장 저조한 경남은행의 1분기 NIM은 1.82%로 여전히 꼴찌다. 4대 시중은행의 1분기 NIM(1.3%~1.5%) 수준과 비교하면 불과 0.3%포인트 차이에 불과한 셈이다.

◆대구은행 수익성·건전성 추가 악화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컸던 대구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구은행의 경우 1분기 순이익이 10.4% 하락했다.

부산·경남은행보다 순이익 하락 폭이 작았고,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실적 악화가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문제는 코로나19 충격의 실적 영향이 본격화하는 2분기부터다. 원화대출이 전 분기보다 5.0% 성장한 건 긍정 요인이지만 대외 여건과 전반적인 지표표를 고려할 때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

NIM은 작년 1분기 2.19%에서 4분기 1.93%로 하락했고, 올해 1분기 1.86%까지 추락했다. 이에 따른 이자이익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비이자이익의 감소 추세도 지속하며 1년 전보다 각각 3.0%, 4.7% 감소했다.

최정호 하나금융 애널리스트는 “그동안 대출성장 추세와 지역은행 역할론을 감안 시 2분기 2%대 이상의 대출성장이 예상된다”며 “2분기 NIM은 1.78%~1.79% 내외로, 1.8%대를 지키기 쉽지 않은 만큼 NIM 방어 노력이 적극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수익성은 물론이고 건전성 우려도 커진다. 정부의 대출 지원 등으로 일시적

안정 추세가 이뤄질 수 있으나 코로나 쇼크가 장기화할 경우 이연된 잠재 부실이 하반기 이후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방은행 중 가장 덩치가 작은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코로나19 타격에서 비껴간 모습이다. 타 지방은행과 달리 지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은 만큼 꾸준한 실적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순이익은 각각 3.1%, 13.8% 증가하며 계획 대비 초과 달성했다. NIM

도 각각 2.30%, 2.47%로 2%대를 유지 중이다. 이에 이자이익은 광주은행이 1.8% 소폭 줄었고, 전북은행은 유일하게 4.0% 증가했다.

◆1분기 순이자마진 0.16%p 하락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올 1분기 순이자마진(NIM)은 평균 1.46%로 전년 동기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

순이자마진은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익, 채권 등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지표다. 시중은행 순이자마진은 2017년 1.63%, 2018년 1.67%를 기록한 후 작년 1분기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올 1분기 국내은행 총 순이익은 3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4조원 대비 7000억원 줄었다.

시중 지방 인터넷은행 등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산업 수출입 기업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의 순이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일반은행의 순이익은 2조6,000억원으로 1년 새 1000억 늘었지만 특수은행은 6000억원으로 지난해 8000억원 보다 쪼그라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가 은행 영업실적에 유의미한 수치로 잡히지는 않는다”면서 “올 2분기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희원 기자 leeyoon@newdailybiz.co.kr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LEGO

FOR EVERY SIZE OF IMAGINATION

Print & Publishing Bronze Lion Campaign

Title: SPACESHIP 우주선
Client: DKSH (THAILAND) LIMITED
Agency: OGLV GROUP THAILAND, Bangkok
Product: LEGO 레고

Copy: For every size of imagination 레고와 함께라면, 너무 큰것도 너무 작은것도 없습니다.

“금리 5%?”… 소상공인 대출 ‘썰렁’

보증수수료 포함땀 年4~5%대
10조원 준다는데… 텅빈 은행

“오전까지 소상공인 대출 건으로 찾아오신 손님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통상 거래를 위해 찾아오신 분들이었죠.”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이 시작된 18일 시중은행 영업점은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혼잡할 것이라던 당국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셈이다.

취재진이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 일대에 위치한 시중은행 영업점을 둘러본 결과 소상공인 2차 대출 신청을 위해 장구를 찾은 고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한 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다는 뉴스를 보며 민반의 준비를 했지만 대출 절차와 서류를 묻는 전화가 종종 있었을 뿐 혼란스러운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영업점 개장을 앞두고 2차 대출 신청자가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방역·예방 대책을 철저히 준비했다. 직

원들은 마스크를 쓴 채 투명 가림막 뒤에서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지정장들은 직접 영업점을 체크하며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했다. 하지만 영업점을 찾은 고객은 평소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문제는 금리였다. 1차 대출 당시 금리는 연(年) 1.5%로 소상공인들이 크게 부담을 느꼈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2차 대출 금리의 경우 보증수수료 0.9%를 포함하면 사실상 연(年) 4~5%대로 경증 뛰어올랐다. 일반 신용대출과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

정부는 1차 대출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이 가시효를 자극했다고 보고 금리를 한층 끌어올렸다. 기존 대출을 갈아타거나 주식투자 목적 등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판단은 정작 긴급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고민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 따른 긴급 대출이라면 일부 부작용이 나 오더라도 과감하게 돈을 풀어야 하는데



창구에서 투명 칸막이 사이로 상담을 하고 있는 은행 직원들. 사진=우리은행

시중금리 수준으로 이자를 물어야 하니 생계가 위급한 소상공인들은 참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서울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신모(42)씨는 “이미 1차 때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한 중북으로 지원할 수 없고 2차는 금리가 워낙 높아서 염두가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여느 대출 상품과 비슷한 것 같아 큰 차이를 못느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김모(38)씨는 “1차 때 급하게 필요로 하는 분들은 이미 많이 받으셨던 것 같다”며 “2차 대출이 정부 목표대로 가시효는 차단하고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창균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

코픽스 최저치 또 갱신

주담대 더 내려간다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내려간다.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매일 하락세를 기록 중이기 때문이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20%, 잔액기준 코픽스는 1.61%로 공시됐다.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신규취급액은 0.06%, 잔액기준의 경우 0.05% 하락했다. 특히 잔액기준 코픽스의 경우 1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한다.

이달의 경우 지난 3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05% 깎았을 때 금리인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해당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지난 3월에도 신규취급액 하락폭은 0.17%를 기록하는 등 낙폭이 컸다.

코픽스가 연일 하락세를 기록 중이지만 대출을 받을 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규취급액 기준이 잔액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금리인상기로 전환하면 금융소비자도 급격한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된다.

주택 구입 예정자는 어떤 대출이 유리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아직까지는 고정 금리가 더 저렴한 편이지



사진=시장경제DB

만 최저 금리 기준으로 보면 변동이 고정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또 개별 고객마다 소득이나 대출 조건, 우대 금리 등을 따지면 변동 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 몇 년 간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는 판단이 들면 변동 금리가 훨씬 유리하다”고 밝혔다.

차진형 기자 jinhyun@newdailybiz.co.kr